

제3장 대 정 읍



대정읍(大靜邑)

대정읍의 동쪽은 안덕면 서광·덕수·사계리와 접하고 서쪽과 남쪽은 바다이며 북쪽은 제주시 한경면과 경계를 이룬다.

대정읍 지역에는 오래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



이를 살펴보면

- 해안사람 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 산출지가 상모리 및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 이는 1만 5천년전의 구석기인이 생활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하모리 유물 산포지, 가파도 유물 산포지 및 패총 등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 상모리 유물 산포지 및 패총 등은 BC 500년 ~ 기원전후의 유적들이며
- 동일리·일과리·하모리·신도리 고인돌, 가파도 고인돌군(群)등은 탐라형성기인 BC 200년 ~ AD 2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대정읍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전지역을 동·서도현(東·西

1) 남제주군지 1권 P.444~445, P.453~467, 남제주군 2006. 강창화, 서귀포문화원 2008. 10.20지방문화 발전 세미나 자료. 남제주 문화유적 P.10, 남제주문화원 2007

道縣)으로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 그 서도현에는 귀일(貴日), 고내(高內), 애월(涯月), 곽지(郭支), 명월(明月), 차귀(遮歸), 산방(山房), 예래(猊來), 홍로(烘爐)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이 속현이었고 그중 산방현이 오늘날 대정읍 지역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 되었다.

1416년(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대정현에는 예래현, 산방현, 차귀현을 예속시켰으니 대정읍 지역은 대정현 관할이었다. 이에 따라 대정읍은 옛 대정현 읍성이 있었던 중심 고장이기도 하다.

1789년(정조 13) 호구 총수에 의하면 대정읍 지역은 안덕면과 통합되어 있었고 현의 우측에 있다 하여 우면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다 1870년경에 안덕면은 우면에서 분리 독립하였고 현의 중앙에 놓여있으므로 중면으로 명명하였다.²⁾

따라서 대정읍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右面：현 대정읍 관내인 東城里, 西城里, 上摹瑟浦里, 下摹瑟浦里, 日果里, 敦浦里와 현 안덕면 관내인 通泉里, 柑山里, 洞水里, 磐川里, 自丹里, 今勿路里가 포함되어 있다.

○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방리조

右面：東城里, 西城里, 上摹瑟浦里, 下摹瑟浦里, 日果里, 敦浦里와 현 안덕면 관내인 今勿路里가 포함되어 있다.

○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

右面：桃源里, 武陵里, 永樂里, 新坪里, 日果里, 下摹里, 上摹里, 保城里, 東城里

○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 호구 가간총책

2)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P.61~84,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右面：安城里, 仁城里, 保城里, 上募里, 下募里, 東果里, 日果里, 新坪里, 永樂里, 武陵里, 桃源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右面：安城里, 九億里, 仁城里, 保城里, 上募里, 下募里, 加波里, 東果里, 日果里, 新坪里, 永樂里, 武陵里, 新桃里.

이 마을 명칭은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후 우면이 된후 대정읍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우면 풍헌을 우면 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초대면장 吳基龍)을 관입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인성리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에 소속되었고 우면을 대정면으로 개칭하였다.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대정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면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33년 면사무소를 인성리에서 상모리로 이전하였다.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이 되었고
- 1956년 7월 8일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다.
- 1959년 1월 1일 대정읍 무릉출장소를 신설하였고
- 2004년 7월 1일 무릉출장소가 폐지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대정읍이 되었다.
- 2009년 11월 30일 현재 대정읍 면적은 78.55km²이며 인구는 16,792명이다. 지역

내에 법정리는 13개이고 행정리는 23개이며 자연마을은 39개이다. 그리고 도서(島嶼)로는 가파도가 871,547㎡이고 마라도가 299,346㎡이며 모두 유인도이다.

현재 대정읍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상 모 리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 모 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동 일 리	동일1리, 동일2리
일 과 리	일과1리, 일과2리
안 성 리	안성리
인 성 리	인성리
보 성 리	보성리
신 평 리	신평리
구 역 리	구역리
가 파 리	가파리, 마라리
영 락 리	영락리
무 룡 리	무룡1리, 무룡2리
신 도 리	신평1리, 신평2리, 신평3리

1. 하모1리의 설촌유래

故老들의 말에 의하면 하모리는 ‘논물거리(沓水巷)’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日果里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곳 주민이 넘어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大靜地方에서도 일과리日果里와 屯浦里는 古村으로 알려져 왔고 많은 사람이 살았던 기록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모슬포리에 처음 왔다는 李尙吉은 古阜李氏 濟州入島 始祖 李世蕃의 玄孫이요 그의 父李光春의 墓가 日果里 가시악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면 이광춘은 일과리에 살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의 직계손이 일과리에 살고있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이상길(李尙吉)이 모슬포리에 온 것은 17세기 중엽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상길은 1640년 출생이므로 20대에 온 것으로 보아 1660년경이 되기 때문이다.

모슬포리가 처음 설동(設洞)된 때는 언제인지 문헌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年代(年代)를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본 선주민(先住民)의 입주연대(入住年代)와 통적(統籍)에 나타난 인구통계의 통계 등을 고찰하여 어느 정도 추측하여 보면 모슬포리 설동(設洞)의 시작은 15세기 말엽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大靜縣이 설치되어 80여년 뒤요 모슬진(募瑟鎭)이 설치되기 이전이다. 진(鎭)이 설치되자 關防(關防) 인원(人員)의 배치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였으니 하모리 통적(1771)에 군사적이 많은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해안(海岸) 통천수(通泉水)가 있어 식수(食水)가 풍부한 ‘논물거리’에 처음 취락이 형성된 후 부락은 차차 동쪽으로 확대(擴大)되어 서상동(西上洞), 중하동(中下

洞), 상동(上洞), 당전동(堂田洞)이 형성되었고 해안(海岸)지대에 돈지동, 영수동이 형성되었으니 여기에는 풍부한 식수(食水)가 있을 뿐 아니라 방호소(防護所)가 설치되어 영사(營史)와 군졸이 살았기 때문이다.

해안부락은 모슬포 항구가 발달됨에 따라 모슬포 중심시가(中心市街)로 되었다. 구한말(舊韓末)까지 무수물 부락이 생겼다가 폐동되고 멜케부락이 형성되었으나 최남의 해안 저근개 부락은 일제(日帝)시대 비행장 건설로 폐동되었으며 골뫼 부락도 비행장을 피하여 서동(西洞)으로 통합되었다. 일제시대(日帝時代)에 와서 정드모루에 새로이 부락이 이루어져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 1985. 8. 1 행정편의를 위하여 남제주군 동(洞)·리(里)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모 1·2·3리를 분리하였다.

※참고문헌. 모슬포(慕瑟浦), 박용후(朴用厚) 5. 90. 도서출판 제우문화

2. 하모2리의 설촌유래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하모리는 하모 3리 서쪽에 자리잡은 논물거리에서 처음 마을이 형성되어 모슬개 등으로 불리어 오다 전 마을 통틀어 부를 때는 모슬리라 함과 동시에 제1모슬리, 제2모슬리, 제3모슬리로 분리 하였다.



이를 조선조 영조 25년(서기 1749년) 쯤에 이르러 다시 상모슬리, 하모슬리로 고쳐 불렀으며 하모슬리는 동남쪽으로 뻗어 나가고 가운데 끼인 중모슬리는 별로 발전하지 못하였기에 상, 하 모슬리에 분산 통합되었고, 그 후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 일제 통치아래 상모슬리와 하모슬리를 상모리, 하모리로 고쳤으며, 1914년 5월 일제에 의해 토지 세부 측량이 실시되어 마을 경계를 확정지었다.

1985년 8월 1일 남제주군에서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모 1리, 하모 2리, 하모 3리로 분리되어 하모 2리는 북쪽에는 대정여자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신영물, 동쪽에는 상모리를 경계선으로 상동일부와 당전동, 영수동을 관할 구역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옛날 당(堂)이 있어 무당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찾아와 빌었다는 데서 동명을 『당밭』이라 부르고 있으며 현재 ‘당전동(堂田洞)’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설도 당시 한 풍수가가 지나다가 이 못(池)에 이르러 물한모금 떠 마시고서 “물맛이 참 좋아서 마치 神靈水 같다.” 한데서 이 못을 『신영물』 또는 『신영수』라 불렀으며 현재는 ‘영수동(靈水洞)’이라 부르고 있다.

3. 하모3리의 설촌유래

우리지방은 해안의 풍부한 용천수와 어자원은 물론 모슬봉, 가시악 등 산과 들에서 짐승사냥과 열매 채취가 용이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게 되었음을 하모리, 동일리, 일과리, 가과도 등지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상모리 산이수동 바닷가에 선사인들의 주거지가 있고 패총무덤에서 출토된 공열토기와 팽이꼴토기로 미루어 2,200여년전 철기시대에도 모슬포를 중심으로 산이수동에서 가시악 부근까지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하모리는 대정지역에서 일찍이 설촌된 일과리와 영락, 무릉 그리고 대정현청이 설치되었던 보성리 사이로서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15세기말경 식수와 바다를 따라 이곳으로 옮겨 살기 시작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일과리에 살던 사람들이 하모리 논물거리(산이물지경)에 넘어와 거주하면서 설촌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모슬봉과 단산 사이에 있는 들메기에서 취락이 형성된 후 서쪽으로 이동하여 모슬포 취락이 형성되었다는 설도 있어 문헌기록이 없는 현재로서는 모슬포리의 정확한 설촌유래는 차후에라도 정확한 사료(史料)에 의해 찾아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모슬포리는 처음에는 동은 제1모슬포리 서로는 제2, 제3모슬포리라고 하였다가 1749년(조선 영조 25년)경 상, 중, 하 모슬포리로 바뀐 것을 하모리 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뒤 중모슬포리는 폐지되고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제의 통치가

있게되자 상모슬리와 하모슬리를 상모리, 하모리로 고쳤다.

1914년 5. 15일 소유지를 등기하도록 고시하여 토지세부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때 마을 경계가 확정되었다.

1985년 8월 1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하모리가 1, 2, 3리로 분리되었고, 하모 3리는 상동, 서상동, 중하동, 둔지동으로 자연부락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摹瑟浦의 由來

우리 마을 設村은 人口가 많이 增加됨에 따라, 사람들이 海邊가에서 점점 많이 살게 됨으로써 바다로 나가 漁獲物을 잡으며 生活을 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터전인 바다를 開拓하려고 하니 船着場인 浦口가 없어서 不可能하였다. 그러자 우리마을 古阜人 李宅, 李座首라는 어른께서 全 里民 役夫를 總動員하여 작은 浦口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浦口 이름을 命名할 적에 이름은 摹瑟峯, 마을은 摹瑟里로 일컬으니, 이 浦口는 記號字를 써서 摹瑟浦라 칭하게 되었다. 그후 人口증가와 더불어 점점 포구가 발전하여 일제말기에는 한섬코지를 매립하여 물양장을 확장하고 앞바다에 있는 빗진여에 방과제를 쌓올려 오늘날의 포구가있다. 지금은 모슬포 港口라고 稱하고 있으며, 大小船舶 百餘隻이 碇泊하고 漁業基地로 크게 活用하고 있다. 他地方 海上交通도 發達되면서 運送業에도 使用을 하고 있다.

日帝時代에는 摹瑟浦 港口와 日本과 大阪間 連絡船인 君代丸이란 連絡船이 連絡하여 많은 本道出身者들이 大阪에 居住하고 있다.

摹瑟浦라는 由來는 자그마한 개창이름으로 지금은 上摹里와 下摹里, 東日里一帶가 摹瑟浦로 명칭되어져 내려오고 있다.

◎ 下摹里라는 里名의 由來

古老의 口傳에 衣하면 摹瑟峯 東南쪽 ‘들매기’란 地境에 人家가 設村이 되면서

마을의 이름을 村夫들이 議論 끝에 뒤에 있는 오름이 摹瑟峯이라 하였으니, 里名을 摹瑟里라 하였다. 摹瑟峯이라함은 아득한 太古에 오름이 形態가 玉女가 앉아 비파를 잡은 形狀이라하여 잡을 摹字 비파 瑟字 오름 峯字를 넣어서 摹瑟峯이라 稱하였다. 摹瑟里가 繁昌하여 人家가 西쪽 海岸까지 分布되어 西紀 1749年 英祖 二十五年 己巳年에 分離되어 東은 上摹瑟里, 中摹瑟里, 西는 下摹瑟里였다.

◎ 西紀 1910년 韓日合邦 後 瑟字를 빼고 下摹里라 稱하고 있다.

洞內形成은 食水에 따라 部落이 형성되었다. 西山伊水洞內, 여지물洞內, 神靈水洞內, 무수물洞內로 形成되었다가 무수물 洞內는 敗洞에 이르렀다. 그 후 南쪽으로 정드마루, 갈못, 광대원, 적은개洞內가 形成되었는데, 西紀 1942年頃 日本軍 軍事基地로 撤去令이 내려져 敗洞되었다. 그 後 마을이 繁昌大村이 되어 西紀 1942年頃 日帝行政上 部落을 分離하였는데, 上洞部落, 西上洞部落, 中下洞部落, 當田洞部落, 靈水洞部落, 돈지동部落, 下洞部落 等 7개 部落으로 形成되어 當時 部落 責任者는 理事長이라 呼稱하였다. 그 後 西紀 1985年度 里行政區域 便上 下洞部落을 一里로 하고 靈水洞, 堂田洞, 上洞一部를 二里로 하고 上洞, 西上洞, 中下洞, 돈지동을 三里로 하여 現在까지 維持하고 있다.

4. 상모리의 설촌유래

상모리는 하모리와 함께 모슬포에 속하였으며 처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제1모슬리라고 하였다가 상.중.하 모슬리로 개칭되었고, 그 뒤 1749년경 중모슬리는 폐지되었으며 상모리의 취락형성은 처음 “뜰메기”(속칭 정지논 서쪽)에서 취락이 형성되었다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모슬봉앞 절좌에 두 번째로 취락이 형성되고 세 번째로 현재 위치로 남하하여 먼저 대동과 서상동(2리)이 형성되고 차차 남쪽으로 확장되어 중하동 서하동((3리)이 생기고 한편 동쪽으로는 이교동과 산이수동(1리)이 형성되었으며 잠시동안 알오름 마을이 생겼다가 일제시대에 폐동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상.하모리로 개칭하였고 1914년 5월15일 소유주를 등기하도록 고시하여 토지세부측량을 실시하면서 마을경계가 확정되었고 1985년 7월 1일 남제주군 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상모 1.2.3리로 분리되었다.

5. 동일리의 설촌유래

동일리는 원래 일과리와 한마을로 “날외”라 불렀으며, 용수가 풍부한 곳

에 자연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서기 1884년(고종 21년) 현 동일리가 일과리와 분리 추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후 1900년(고종 37년)이 되어서야 일과리에서 분리되어 동일리로 호칭하게 되었다.



1919년 8월 자연부락 천미동이 동일2리로 분리되었다가 4.3사건으로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해안으로 이주하여 동일리로 합쳤다가 1987년 7월 1일 또다시 천미동을 동일2리로 분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일과리의 설촌유래

서림에 많은 용천이 있어 아주 오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

던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이 지역에 분포된 고인들이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음. 지금부터 약450여년 전 조선중종(中宗)말엽에 전쟁과 사화로 세상이 어수선했던 지자 정치에 염증을 느낀 선비들이 초야에 묻혀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전에 의하면 일과1리에 정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임진왜란이 반발로 정규안(丁奎安)씨의 15세조 정운이 아들이 지씨와 임씨를 대동하여 난을 피하여 선친을 찾아 일과리(日果里)에 정착하게 된 것이 일과리 설촌의 근원이라 전해 지고있으며 지금부터400여년 전후에 설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오늘에 일과리는 과거 “날외”라고 불렀는데 날외(일과)가 설동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900년 일과리와 동일리로 분리되었으며 그후 일과리는 일과1리.2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인성리의 설촌유래

가. 설촌

조선(朝鮮) 태종(太宗) 16년(西紀 1416年) 안무사(安撫使) 오식(吳湜)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제주도는 동서도(東西道)로 양분(兩分)되어 대정(大靜), 정의현(旌義縣)이 설치되고, 태종(太宗) 18년(西紀 1418年)에 현감(縣監) 유신(兪信)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정성(大靜城)을 축성(築城)하였고, 성

축의 둘레는 4,890척(2,092m)이고, 높이는 17尺4寸(7.44m), 폭은 7尺4寸(3.16m)이며, 성문(城門)은 동·서·남문(초기에는 북문까지 4개의 성문)3개의 성문으로 되어있다.



나. 대정고을

대정(大靜)고을 지역은 산방촌(山房村) 중간(中間)에 위치(位置)하여 남쪽으로 모슬봉(慕瑟峯), 송악산(松岳山), 단산(簞山)을 바라보고, 북쪽으로는 당산봉(堂山峯)을 끼고 있어 넓은 평원(平原)을 이루고 대정읍(大靜邑)의 중심부(中心部)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런 지역적(地域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현소재지(縣所在地)가 되었던 것이었다. 일찍이 산방촌(山房村)에서 부락(部落)이 서쪽으로 확산되어 갔으나 현(縣)을 설치(設置)한 뒤 성(城)을 축조(築造)하고 주민(住民)들이 성(城)을 중심으로 모여와서 동(東), 서(西)로 부락이 발전하여 동쪽부락(部落)을 동성리(東城里)로, 서쪽 부락(部落)을 서성리(西城里)라 칭하였다.

안성리(安城里)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부(戶籍簿)에 의하면 光緒 5년(西紀 1879년)에 처음 안성리(安城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인성리(仁城里)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부(戶籍簿)에 의하면 光緒 17년(西紀 1891년)에 인성리(仁城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호적부(戶籍簿)에 의하여 추정한다면 동성리(東城里)는 안성리(安城里)로 개칭(改稱)하였다가 안성리(安城里)에서 인성리(仁城里)가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성리(保城里)는 서성리(西城里)에서 光緒 13년(西紀 1887년)에 보성리(保城里)로 개

칭되었다고 한다.

인성리(仁城里)는 성(城)을 사랑한다. 또는 인정(人情)이 두터운 곳이라는 뜻이며, 안성(安城)은 성(城)을 평안하게 한다는 뜻이고, 보성(保城)은 성(城)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다. 향사(鄉舍)의 분리

구전(口傳)에 의하면 光緒 17년(西紀 1891년)경 안성리에서 인성리가 분리되면서 향사분배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자 강풍헌(風憲, 姜齊炯)께서 “그렇다면 나의 의견에 따르시겠냐”고 물어 부민들이 찬성을 하자 강풍헌께서 톱을 갖고 향사 지붕으로 올라가 상모르를 반으로 잘라, 동쪽을 인성리, 서쪽을 안성리로 분배하였다. 인성리 부민들은 동쪽 자른 집을 분배 받아서 인성리 174-1번지에 초가 15평(坪)을 향사로 건립하였으나 부지가 좁고 건물이 협소하였다.

서기 1937년(당시 신성갑<申聖甲> 구장<區長>)에 독지가 오태운(吳泰運)씨께서 현 부지(인성리 292번지, 98평)를 기증하여서 향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서기 1960년 3월 강수선 리장 당시 개축하였고, 서기 1979년(당시 정종화 이장)에 마을회관(2층 슬라브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서기 1996년(김창옥 리장)에 증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안성리의 설촌유래

안성리(安城里)의 설촌은 대정현(大靜縣) 설치와 함께한다. 대정현 설치 이전 이 고장에 입주민은 동헌(東軒)터(현 보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풍천임씨(豐川林氏) 나주정씨(羅州正氏) 여산송씨(礪山宋氏)등이 거주하였으며 북문 밖 수월이 못(水月池) 근처에 해주오씨(海州吳氏) 원주원씨등 삼백여 호가 취락을 이루어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곳 대정 고을에 대정현이 설치된 것은 1416년(조선 태종16년) 제주목사 겸 도

안무사 오식(吳湜)은 제주에는 백성이 많아지면서 소송이 끊이지 않으며, 한라산 북쪽 한곳에만 관아(官衙)가 있어 제주목 산남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관아를 왕래하는 것이 불편 할 뿐만 아니라 도착 세력들이 불법적인 약탈을 종종 일삼으므로 이리



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주의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함을 중앙정부에 호소한다. 당시 조선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지방통치를 위해 8도 체제하에 군현(郡縣)의 정비를 시도하던 때와 일치하여 제주에 3읍(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체제가 탄생하게 된다. 이리하여 태종16년(1416년) 대정현을 설치하고 현감을 두었다.

행정구역은 동쪽으로 법환리, 서쪽으로는 판포리에 미쳤다. 그후 법환리는 서귀면에 두모, 저지, 조수 판포리는 구우면(舊右面)에 편입되었다.

우리고장 대정고을은 남쪽으로 단산과 송악산, 우측에 모슬봉, 좌측에 산방산, 북쪽으로 한라산을 등지고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기에 현청 소재지가 된 것으로 본다.

대정현 설치 2년후인 태종18년(1418년) 대정현감 유신(兪信)에 의해 1개월만에 대정현성(大靜縣城)을 와성 하였다고 한다. 성은 동 서 남 북 4문이 있었다. 선조(1568~1608)때 북문은 용성(壘城)으로 쌓았다가 후에 폐쇄하였다. 성안에는 관아(官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민가(民家) 일부가 거주하고 있었다.

가. 방리(坊里)명칭 동성리(東城里)

현성을 쌓은 후에 명칭을 성안(城內)이라 불러오다가 성안으로 모여드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선조 중엽(1568~1608)에 성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직선도

로를 경계로 동쪽은 성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동성리(東城里), 서쪽은 서성리(西城里)라 이름하여 두개 마을로 나누어 졌고 동성리는 제주목과 정의현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객사인 영안관(瀛安館) 향사당(鄉社堂) 향교(鄉校) 송죽서원(松竹書院) 연무정(演武亭)등 주요 관아들이 있었다.

나. 동성리에서 안성리(安城里)로 개명(改名)

안성리 개명과 인성리의 분리고증(考證)은 호적중초(戶籍中草)와 호구단자(戶口單子)에서 찾아 볼수 있다.

호적중초는 조선시대 호적대장으로 매 3년마다 군·현단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호적중초는 호구동태를 파악하고 지방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균역과 세금징수, 신분관계 파악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하였다. 호구단자는 자기 집안의 호구상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호적신고서라 할 수 있다. 매 3년마다 각 호의 구성원과 노비 동거인 까지 기록하여 제출 하였다.

우리 마을에 소장하고 있는 호적중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光緒五年正月日大靜郡己卯式 戶籍中草 第二右面 第七東城里<改里>安城里”

이씨(李氏)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호구단자에는 “光緒五年正月日 大靜郡己卯式 戶口單子 第二右面 第七 東城里<改名> 安城里”라고 기록 된 것에서 개리(改里)와 개명(改名)이라는 표기가 다를 뿐 동성리는 광서5년인 서기1879년1월에 안성리로 마을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호적중초에 기록된 호구동태는 원호241호 작동48통 인구도합 1411명으로 안성리는 대촌(큰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안성리(安城里)에서 인성리(仁城里)분리(分里)

광서17년 호적중초와 호구단자에는 각각 다음과같이 기록하고 있다.

“光緒十七年正月日 大靜縣乙酉式 戶籍中草 第二右面 第七 安城里”

“光緒十七年正月日 大靜縣乙酉式 戶口單子 第二右面 第八 仁城里”

위에서 광서17년(1891년) 인성리라는 리명이 처음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다. 제7

안성리에서 제8 인성리로 분리 되었음은 확실하나 분리연대가 문제가 된다. 3년전 작성한 광서14년 호적중초와 호구단자에 인성리 분리라는 문구가 없다. 광서17년 호구단자에도 인성리 분리라는 문구없이 제8 인성리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이로보아 분리연대는 광서14년과 17년사이인 광서15,16년(1889~1890)에 안성리에서 인성리가 분리되었음을 추정 할 수가 있다. 분리(分里)된 원인은 당시 고씨(高氏)와 이씨(李氏) 집안을 중심으로 마을이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 되어 마을 향사집 상모루를 둘로 나누어 안성,인성 두 마을의 향사를 각각 지으므로 분리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라. 안성리(安城里)에서 구역리(九億里)분리(分里)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일제는 침략정책을 강화 하기위하여 1914년에 대정(大靜) 정의(旌義) 두군을 제주군(濟州郡)에 통합 시켰고 1915년에는 도제(島制)를 실시하면서 안성리에서 구역리가 분리 되었다.

본래 구역리는 안성리 본부락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구석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옹기(甕器)가 만들어 지던 곳이다.

참고문헌 : 보성초등학교-1986, 향토지 대정고을의 역사 (성심인쇄사)
 제주도교육청-1993년,우리고장 제주도 (일신옵셀인쇄사)
 제주도-2006년, 제주도지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남제주문화원-2006, 대정군지 (일신옵인쇄사)
 인성리마을회-1998,인성리향토지(유경문화인쇄사)
 영락리-2006, 영탈리지 (태화인쇄사)

9. 보성리의 설촌유래

보성리(保城里)의 설촌유래는 그 명세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이전에 “두레물”이라는 지하수가 솟는 샘을 중심으로 취락을 형성하여 왔고 탐라기년에 의하면 고려25대 충렬왕25년(1300년) 도서도현을 설치하

여 산방이라 불리었고 조선태종16년(1416년)대정. 정의현을 신설할 당시에는 풍천임씨(豊川任氏), 나주 정씨(羅州丁氏), 여산송씨(礪山宋氏)등이 거주하는 고을로 형성되어 왔다.



당시 대정현(大靜縣)이 중심지인 성내의 주요 관아가 본리를 중심으로 건치 되었으니 동헌(東軒)터와 각종 관아가 현재 속칭 “동헌터”(현 보성초등학교)부근에 설치되어 옛 이름 그대로 불리어 왔으며 선조(宣祖)중엽에 동성리와 서성리로 대정 고을을 칭명하여 고종(高宗)초(1864년)까지 불리어 오다가 동성리는 인성리와 안성리로 분리하고 고종24년(1887년)에는 서성리가 보성리로 개칭되었다.

또한 보성리 상동마을은 그 지형이 돛귀(猪耳)와 같이 생겨 부촌을 이룬다는 설에 따라 옛부터 설촌 되어오다 고부이씨(古阜李氏), 여산송씨(礪山宋氏), 한양조씨(漢陽趙氏)등이 씨족이 마을을 형성하고 아울러 특이한 몇몇 씨족중심의 마을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 신평리의 설촌유래

신평리는 1862년 (철종13년) 보성리 서부에 새로이 약 20가구가 이주하여 취락을 형성된 것이 지금 신평리 상동부락이다. 그후 고종원년(1864

년에 대정군 당시 동삼리(東三里) 서사리(西四里)에 속한 일과리(日果里)의 일부를 대정군수 강위중의 건의에 의하여 보성리(保城里) 일부와 일과리 일부를 각각 분리, 이를 통합하여 신평리라 부르게 되었다.



신평리는 본시 “웃날외” 또는 “웃날래”라 불리우던 것이 후에 리(里)분리와 더불어 지세가 평지라는 데서 한자표기에 의하여 “신평리”(新坪里)라 이름하였다.

11. 구억리의 설촌유래

지금으로부터 약250여년전 지금 구억리(九億里)상동부락(上同部落) 동쪽에

“다리논물”이라는 못이 있는데 물주위에 조씨(趙氏), 문씨(文氏)가 살아서 조가(趙家)집터, 문도령 집터라고 불리우고, 또 상동부락(上同部落) 서쪽에 양씨(梁氏)가 살았으므로 양가(梁家)집터, 그 남쪽으로는 고씨(高氏)가 살아서 “고광우”(과목) 집터라고 불리우고 있다.



구역리는 처음 조(趙) 문(文) 양(梁) 고(高)씨등이 와서 살면서 옹기를 만들기 시작 하였으니 이것이 구역리 요업(窯業)의 시작이다. 얼마뒤 이들은 한경면(翰京面) 저지리(楮旨里) “명이논”으로 가버렸고, 그후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하였는데 경주김씨(慶州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직접 육지에서 건너왔고, 고씨(高氏)는 제주(濟州)도련(道蓮)에서, 밀양박씨(密陽朴氏)는 전남(全南) 진도(珍島)에서, 남양홍씨(南陽洪氏)는 애월(涯月) 중엄(中嚴)에서, 진주강씨(晋州姜氏)는 애월(涯月) 수산(水山)에서, 과평윤씨(坡平尹氏), 김해김씨(金海金氏)는 무릉리(武陵里) 인향동(仁鄉洞) 동북쪽 “세비나리”에서 넘어와 부락을 형성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목축과 요업(窯業)에 종사하며 살았는데, 이들은 여기서 생산하는 도기(陶器)를 행상으로 식량이나 생필품과 물물교환 방식으로 섬 전체에 공급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이 처음으로 정착한곳은 안성리(安城里) 상동(上洞)이었으나 1915년 안성리에서 분리하여 부락명칭을 구역리라고 한 것은 “가래동산”(구역리624-1일대)이 있는데 이곳에서 맷돌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 옆에 큰 밭(산23번지)이 하나 있는데 그 밭 구석이 9개가 되어서 구석밭(九석전)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구석밭을 한자음으로 표기 한 것이 구역리이다. 이 리명을 지은이는 1915년경

안덕면(安徳面) 서광리(西廣里) 훈도 김행위라는 분이라고 전해진다. 초대이장은 박달천(朴達千)인데 마을 발전에 많은 공로가 있었다고 전한다.

1931년도에 안성리에 있던 대정보통학교(大靜普通學校)가 모슬포(慕瑟浦)로 이설하자 당시 구장이었던 조기학(趙基鶴인), 학교건립 기성회장 강진숙씨등 몇몇 마을 유지를 중심으로 일본에 있던 고태규 김여권씨 등 도움으로 1944년도에 북초등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개교, 당시 주변 마을인 서광리 한경면 산양리 명의논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을 하였다.

1943년 4.3사건 발발 중산간부락 소개령에 따라 전 주민이 인근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의 모슬포 등지로 임시 먹을 식량만 가지고 마을을 내려온 후 구역리 마을에 집과 식량 심지어 우마 가축까지 정부령에 의해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후 1950년도에 구역리마을로 수복 재건하였으나 정부에서 지정한 구역내에 축성하고 우막을 짓고 살면서 집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현재 행정구역상 구역 안성 보성 3개리가 결합된 마을이다.

12. 가파리의 설촌유래

가파도 하동 포구에는 개경 입주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2년에 건립된

가파도 개경 120주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기념비의 내용을 봄으로써 설촌배경과 해방이전의 역사를 가름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加波島 開經 一百二十週年 記念碑

<측면>

가파도 입주를 기념하기 위하여 온 도민의 정성으로 1962년 당시 리사무소 입구에 기념비를 건립하여 영원히 증표로 삼으려 하였다. 내용문장이 한자 조각이 되어 있어 해석이 곤란하므로 다시 한글로 해설문을 별도 조각하여 가파도의 관문인 황개 포구 입구에 1985년 9월 19일에 이설 나란히 건립하였다.

그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리민의 조상들은 현종, 임인 이래 상·하모슬리에서 건너와서 목야지인 본도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고 해안을 개발하여 우수한 어장지를 만들어 금일의 번영과 행복과 평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들 후손 리민일동은 개경 이 회갑의 뜻 깊은 해를 맞아 조상의 노고와 그 봉적에 감사하면서 이에 기념비를 건립하는 바이다.

<정면>

本島 古稱 蓋島, 蓋波島, 加波島, 加乙波知島, 더위섬, 本題 國畜馬牧地 李朝 成宗時, 御乘良子莫產出 英祖二十六年 犧牲進貢用 黑牛 五十頭 放牧以來 憲宗 六年 庚子 英國船 來泊 畜牛 砲殺 去力去後 廢牛場 同八年 壬寅 開耕 許可 李

廣廉 主管 上·下摹瑟里民 往來 開墾耕 轉人 耕稅 納司 僕司 自哲宗 末頃 人耕 民定住 西紀 一八八六年 乙酉 日本人 潛水器 漁業者 吉村與三郎一行 定着 人漁 是我國 潛水器 漁業, 創始地 且 翌 丙戌年頃 吉村 甘薯栽培法 傳授于 有志 金龍興 比是 近世 濟州 甘薯栽培之嚆矢也 一九一四年 下摹里 所管 觀脫 加波里 呼稱 教育 高宗初 漢文 訓學 以來 人村輩出 辛酉年 金成洙 創設 里立 辛酉義塾 一九四七年 加波國民學校 創立 引繼 一九二三年 항개 西防波堤 築城 一九三六年 沿海漁業 鱒漁撈法 導入 傳播 屬島 馬羅島 火口 開墾 一八八三年 癸未 本里 戶數 乙酉年 四十戶 現在 戶數 二百十二戶 人口 千三十六人

(해설문)

이 섬 옛 이름은 개도, 개과도, 가과도, 가을과지도, 더위섬이라 불렀고 처음에는 나라에서의 소와 말을 기르는 목장지로서 이조 성종때 1469년 임금이 타시는 양마를 산출한 곳이다. 영조 26년 1750년 나라에 바치는 희성 진공용(소) 50마리 방목한 이래 현종 6년 1840년 영국선이 내박하여 축우를 총으로 쏘아 잡아간 후 폐우장이 되었다. 동 8년 임인년 1842년 이광렬 주관으로 개경을 받아 상·하 모슬리민들이 왕래하면서 개간 경작하기 시작해서부터 나라에 납세하였다. 철종 말경 1863년 이 섬에 소와 쟁기로 밭가는 법이 들어 오면서 주민이 살기 시작했다.

1885년 을류 일본 잠수기 선업자 길촌여삼랑(요시무라) 일행이 정착하면서 입어후 우리 잠수기 어업이 발달한 시초지다. 뒷해 병술년 1886 길촌여삼랑이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도입하여 재배법을 전수 받아 본리 유지 김용흥 역시 근세 제주도 고구마 재배를 장려했다.

1914년 하모리 소관에서 분리되어 가과리라 부르고있다. 교육은 고종초 1863년부터 한문 훈학하기 시작해서 학자와 지식인들이 배출되었다. 신유년 1921년 김성숙의원 주관으로 신유의숙학교 창설, 1947년 가과국민학교 창립 인계하고 1923년 항개 서방과제를 리민의 협력으로 축성, 1936년 연해어업 멸치, 자리 어로법 도입 우리 조상님들이 연구 개발하여 오늘과 같이 제주도 멸치, 자리, 어로법이 발달한 시초이다.

가파도는 선사시대 유적이 알려져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후 기록이 전무하다가 조선초기의 기록에 지명 및 목장이 설치되어 일부 사육하는 관리만 있다가 조선후기인 지금으로부터 140여년 전부터 사람을 이주시키면서 마을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참고문헌. 가파도 학수보고서.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2001

13. 마라리의 설촌유래

마라도는 본래 무인도로서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문헌이나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어 전해오는 설에 의하여 추리할 수 밖에 없다. 전해져 내려 오는 말에 의하면 개척 이전의 마라도는 ‘금섬’으로 불리워지

는 섬으로 인근 지역 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여기며 접근을 꺼렸던 섬이다. 섬은 울창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해안에는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나 주변 해역의 파도가 높고 기후의 변화가 심하여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망종이 지나면 불규칙하게 변화하던 날씨가 풀리고 해상에서의 위험도 적어진다. 이 때에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섬에 상륙하여 나무를 베어 가고 해산물도 채취해 가는 일이 있었다.

현재 할망당의 당신(堂神)으로 섬기고 있는 처녀도 나무를 베러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해산물을 채취해 가려던 사람 중에 최초로 희생된 사람일 것이다.

오랫동안 무인도로 방치되어 오던 섬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 고종(26대) 21년 1884년부터이다. 당시 대정골에 거주하던 김씨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하자 친척들이 모여 상의한 후 고을 원님에게 섬의 개척을 건의한 결과 이듬해 제주목사 심현택이 공식적으로 인가하여 이주가 가능해졌다.

김씨가 마라도를 개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파도와 모슬포에 거주하던 (나씨, 김씨, 이씨, 강씨, 한씨, 황씨, 심씨 등) 사람들이 지원하여 앞장섬으로써 여러 세대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라도에 이주하였다.

그들은 주로 보리나 조, 콩, 고구마 등 밭 농작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섬을 개척해야만 했다.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할 당시에는 섬 안에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했었다고 한다. 얼마나 무성했던지 그 나무들로 제주 특유의 나무 절구인 「남방애」를 만들기도 했고 또, 집 재목과 가구를 만들다가도 남아, 하늘을 찌를 듯이 뾰뾰한 숲이 온 섬을 덮었다.

이주민들은 농경에 필요한 경작지를 마련하고자 숲을 태워 없애고 탄 자리를 일구어 농지로 바꾸어 나갔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고향을 떠나 온 이주민 중의 한 사람이 환한 달밤에 통소를 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뱀이 몰려 왔다고 한다. 놀란 이주민은 섬 내의 많은 뱀을 제거하기 위하여 숲에 불을 질렀는데, 타기 시작한 나무는 석 달 열흘이 지나서야 불길이 멎었고, 이때 뱀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다를 헤엄쳐 제주도의 동쪽 지방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마라도는 뱀과 개구리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개척된 농경지에 농사가 시작되었고 수년 동안은 경작하는 작물마다 풍작을 이루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1915년 일본인들은 이 곳에 등대를 건설하기 위해 입도하였으며, 이 등대의 여러 시설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울타리 돌담 뿐인데, 그 흔적을 보면 얼마나 완벽한 시설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해방 후 행정 구역 상으로 대정읍 가파리 소속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1년 4월1일 남제주군 반설치(班設置) 조례 및 리장 정원 조례 개정에 의거 마라도 1·2반을 삭제하고 가파리에서 마라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지번은 가파리로 되어 있다.

현재 마라도 등대는 태양과 풍력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기가 끊겨도 중단 없이 저 바다를 향해 불빛을 발사할 수 있다. 최근에 위성 항법 장치도 설치해 마라도 주위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게 기상 상태 등을 즉시 위성으로 쏘아줄 수 있다.

마라도 등대는 10초마다 한번씩 불빛을 반짝인다. 불빛이 가 닿는 거리는 38 km, 비바람이 치고 안개가 끼면 불빛 없는 바다에 공기압축기로 사이렌 소리를 낸다. 30초마다 한번씩 울려주면서 항해자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도에 제주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마라도 등대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등대이다.

14. 영락리의 설촌유래

우리 제주도의 경우 대다수 마을의 설촌역사는 古典과 古地圖에 의하면 대략 500년에서 100년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한다.

永樂里도 언제부터인가 선인들이 이 땅에 등지를 틀고 삶을 살아 왔으며 앞으로도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 갈 소중한 터전이다.



그렇다면 永樂里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이고, 촌락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은 언제이며, 행정구역상의 里洞 단위 마을로 認許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또 永樂里라는 里名이 命名된 배경은 무엇인가 등 영락리 설촌의 내력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오창명 교수는 그의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에서 ‘永樂里는 적어도 17~18세기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라 하였고, 吳洪晳 교수는 그의 학위논문 「濟州島의 聚落到 關한 地理學的 研究」에서 永樂里의 경우 ‘同族聚落成立年代’를 200~300年 전으로 기술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영락리의 설촌과 관련된 문헌기록이나 유물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몇몇 기록의 斷片들이거나 口傳으로 전해오는 자료들 뿐이므로 考證에 확실한 기록이나 유물·유적을 중심으로 설촌의 유래를 구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다행히 영락리 마을에는 현재 ‘永樂里 戶籍中草’와 ‘統籍’, ‘戶口單子’ 등 20여冊과 ‘鄉約’ 그 밖에 몇 건의 雜文 書類가 里民會館의 ‘서등계’에 보존 보관되어 있어서 당시(19세기 중반)의 人口動態와 戶主의 職役 등의 實相이 부분적으로나마 전해 지고 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설촌관련 행정서류가 유실되어(故 玄성기 님이 ‘失文하여 本草文이 없다고 확인) 마을의 역사를 증빙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다른 기록이나 고증에 필요한 유적·유물 등이 전무한 상태여서 설촌 초기의 역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永樂里 鄉土誌 편찬사업은 설촌 이래 처음으로 마을의 역사를 정리하고

定立하는 역사적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史的 考證이나 검증된 기록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하는데 이미 밝혀진 문헌, 문서류(戶籍中草, 道誌, 郡誌 등)상의 기록 이외에 혹시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영락리 설촌 내력을 찾아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탐문 탐색하느라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節에서는 기록물에 나타나는 永樂里 設村年代의 몇몇 서로 다른 主張(記錄)을 檢討 음미해 보고 향민구비로 전해지는 ‘壬子造幕甲寅設洞說’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가. 1734년 設洞說

이 기록은 ‘부락의 설촌과 발전의 유래를 정리하는 제주의 향사’ 179호(1980년 5월 22일(월)자 제남신문 4면)에 게재된 기획 연재물이다.

여기에 따르면 영락리는 서기 1732년에 조막하고 그 두해 뒤 즉, 지금(서기 2004년 기준)으로부터 정확히 270년 전인 서기 1734년에 설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때를 干支를 代人하면 ‘壬子年 造幕에 甲寅年 設洞’이 되는데 이 설동년대는 조선왕조의 영조 10년에 해당한다. 또 이 기록은 ‘그 후 영락리는 서기 1855년 咸豐 5년(중국 연호) 정월에 이르러 동리 가구수가 20餘戶로 늘었으며 이 때부터 마을 이름이 영락리로 불려졌다고 한다’는 설명까지 곁들여 있다.

이를 요약하면 영락리는 1730년대 초에 설동하였고 그로부터 100여 년 후인 1850년대에 와서 가구수의 증가 등에 따라 제 모습을 갖춘 마을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설동관련 내력의 출처는 당시 마을의 元老이신 趙恒寬 님의 증언과 설명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752年 ‘新設洞’說

이 기록은 正齋 高炳五 先生이 撰述한 『元大靜郡誌』 草稿本의 里名條에 ‘永樂里, 英祖 壬申 新設洞’ 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는 것이 무척 아쉽다.

正齋 先生은 上幕里 출신 유학자로서 韓末의 유학자 田愚를 師事하였고 뛰어난 文筆家였으며(文友 權純命과 交遊) 일제 말엽에는 강압적인 創氏改名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少數 節概派 儒林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향토사학자로서 大靜郡의 역사와 문화의 조사, 연구에도 심혈을 경주하여 방대한 양의 史實을 체계화한 郡誌의 완성 등 다대한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그가 남긴 영락리 설동 연대 ‘1752년 신설동’ 설은 필시 확실한 고증에 의한 단정적 기록으로 보이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이상의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서 아쉽다.(이 초고본에 의하면 武陵의 경우는 永樂보다 6년이 앞선 英祖 22년 병인 1746년에 설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1773年 設洞說

이 기록은 진성기의 『남국의 지명유래』 의 대정읍 편에 ‘영락리, 서기 1773년도에 설촌된 부락으로서 소위 南場이었던 국유지를 마을 설립과 동시에 분할한 마을임’이라고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해(年度)는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 전인 朝鮮朝 英祖 49년인데 干支로는 癸巳年에 해당한다. 저자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민속학 분야에 폭넓은 연구와 많은 저서를 남기 鄉土史學者이다. 이 분을 통하여 永樂里 設村에 대한 역사적 배경 등 정확한 고증을 기대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직접 면담과 자문 과정을 통해서도 ‘1773년 설촌’의 근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

라. 18世紀末葉(1794) 設洞說

永樂里를 포함하는 武陵, 新桃 지역을 흔히 ‘西三里’(또는 서 6개리)로 불리는데 옛 大靜縣의 이 西部地域은 고려시대부터 차귀현(遮歸縣)이 있었던 곳으로 朴用厚의 『大靜邑 略史』 에 의하면 “...이 곳은 元의 牧場이 있던 곳으로 일찍부터 사람이 살

있고...(중략) 맨 서쪽은 西場(新桃), 그 동쪽은 中場(武陵), 남쪽은 南場(永樂)이라고 하여 毛洞場을 3개장으로 구분하였고 그 3개장에 각각 부락이 형성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中場部落(枸木里)은 純祖 11년(1811)에 武陵里로 개칭하였고, 南場 부락은 永樂里라고 하였다.”라는 등의 문맥으로 볼 때 永樂里도 純祖朝의 1800년대 初에 이미 일정한 규모의 촌락을 이루어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남장부락은 永樂里라고 하였다.’라는 시점이 1811년이니까 ‘造幕’이니 ‘設村’이니 하는 村落 形成의 初頭時期는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인가. 여기서도 굳이 첫 설촌을 하였다는 갑인년을 찾는다면 그 年代는 언제쯤일까. 가장 가까이 소급해 볼 수 있는 갑인년은 1794년(正祖 18년)에 해당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해는 바로 우리에게 흥년의 대명사로 전해지는 ‘개빈년 송년(甲寅年 凶年)’에 해당하는 연대이기도 하다.

마. 1854년(壬子造幕 甲寅設洞)說

영락리 설촌이 19세기 중엽으로 기록된 몇몇 단편적인 기록물들이 보이는데 대체로 加波島 黑牛牧場의 폐쇄와 관련짓는 내용들이다.

즉 英祖 26년(1750)에 牧使 鄭彦儒가 加波島에 牛牧場을 설치하고 黑牛 50두를 방목하여 진공용으로 사육 중이었는데 憲宗 6년(1840)에 英國 함대가 가파도 해안에 정박하여 大砲로 人畜을 살상하고 소를 약탈하는 등 진공우 사육이 불가능하게 되자 나머지 소들을 永樂里 지경인 모동장으로 옮겨 습득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때를 같이 하여 각 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 움막을 짓고 농지를 개간하면서 설촌의 기반을 닦았다는 요지이다.

15. 무릉리의 설촌유래

가. 설촌 유래

본리는 1612년 조막하였다 하나 훨씬 그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00년경 13~14세대가 모여 살았다는 선인들의 고증으로 짐작할 수 있다.

1614년에 설동하고 1701년 무자년에 현 둔포리에 서 분향하여 구남무기(구목리)라 불려져 왔다.

그후 1614년 (효종5년) 갑오년 대정 현감 변만향이 현 신도리의 옛이름인 둔포리란 마을 명칭이 좋지 않다 하여 도원리로 개칭되고 이웃마을인 본리의 명칭도 부락민들의 논의를 거쳐 옛 중국고사에 선경처인 무릉도원의 머릿글자를 따서 구목리를 무릉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20년경 급격한 인구증가로 무릉1, 무릉2리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졌으며, 설동당시 맨처음 입주한 분은 白氏라고 하며 첫 경작지는 전담음요수(前踏飲要水) : 일명 ‘앞논물’이라고도 하며 현재의 무릉리 3128번지 임대라고 전해지고 있다.

설촌후의 씨족을 보면 백씨, 정씨, 황씨, 홍씨, 김씨등이 들어와 살았었는데 그후 임씨, 이씨, 강씨, 문씨, 오씨등 많은 성씨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무릉리 부락을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목리(枸木里) 당시 행정책(行政責)은 리집강(里集綱)이라 하여 리(里) 최고 책임자를 정민장(政民長) 차위(次位)에 존의(尊儀), 농감(農監), 기찰(紀察) 그 밑에 하소인(下召人)을 두어 리행정(里行政)을



떠 나갔다.

외침을 막기 위하여 활쏘기 사격연습장과 ‘솔대왓’이라는 지명이 붙은 솔대(활쏘기 할때의 과녁)가 있고 군마를 거두어다 낙인을 찍던 수마터(水馬處)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사장동’솔대왓’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불리워지고 있다.

1850년 경에는 무릉리를 중심으로 하여 모동장이란 관용목장이 있었는데 서장(西場) 신도리경, 중장(中場) 무릉리경, 남장(南場) 영락리경 등 3장이 있었다고 한다.

원 대정군지에 의하면 모동장은 현(縣) 서쪽 15리 대정읍 무릉리에 있으니 조위(調圍)37리요 마우감(馬牛監) 각 1인 군두(群頭) 1인 목자(牧子) 18명이었으며 원래는 우마를 함께 방목하고 감목(監牧)도 따로 있었는데 그후 말이 점점 줄어서는 까만소(흑우)와 말을 길러서 말은 군마로 사용 하였고 까만소(흑우)는 육용으로 국가에 진상 하였다고 한다.

나. 마을 위치

대정읍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해안 및 중산간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있는 마을로 서쪽으로 신도 1리, 동쪽으로 영락리와 접해 있고 읍 중심지와 8.1km, 시청소재지와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 마을어원

고래통, 부사리, 가메앞, 덩불이뭇, 하리통, 수마터, 솔대왓, 사장동, 구목리, 전지동, 암모루 암마을등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16. 신도리의 설촌유래

가. 設村의 由來

본리에 인가가 형성되기까지는 신석기 시대로 보인다.

최근 신도리 1466번지에 대지를 정리하던중 돌도끼 등이 나왔는데 기원 원년을 전후하여 사람이 살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고려시대 제주도가 “元” 이 지배하에 있을때 10소장과



별도로 각 소장에서 차출한 우마를 반출하기전 임시로 모두어 방목관리 하던 도동장(모듬장)을 셋장 중장 남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면 (1750년 英祖 25년 가파도에 흑우장을 이곳 모동장으로 옮겼음)서기 1250년을 전후하여 목장을 관리하던 목자와 가족, 자고네 포구등 자연포구를 이용한 해산물 채취등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10가구 이상이 인가를 형성 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무렵부터 된 개 (屯浦)란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중종 14년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1520년 고부이씨 입도로 李世蕃이 당시 대정현 돈포에 유배생활을 하며 훈학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7년



적거 생활하시다가 졸묘 현 고산리 신물경) 이무렵 까지 집단으로 취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여세대이상 인가는 있었다고 추측된다.

서기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왜구(해적)의 노략질을 피해 1588년경 녹남봉 서쪽기슭에 마을 터전을 마련하고 토지를 개간하여 1599년

도 맨처남 “슬랑통”과“
윤남못” 음료수를 개정
(진성기 남국이지명유
래)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집단 취락이 형
성되었다.



나. 된개 (敦浦) 로 命名

서기 1620년 광산김씨가 입촌하여 거주했다는 구전이 있으며 김해 김씨 金如東
이 1670년에 입촌하여 거옥대 지경에 거주하면서 훈학에 전념했다고 전해오며
그 후예 들은 현재 본리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같이 100여년동안 점차 인가가 늘어났으나 행정단위마을로 면모를 갖추기에
는 미흡하던중 경주김씨 德亨씨가 1691년에 한림 수원에서 이주하여 왔으며 이때
마을 어른들이 중지를 모아 1698년 지금까지 지역명으로 불리어 왔던 된개 (屯浦)
를 敦浦로 한자표기를 바꾸어 대전현 서면(후에 우면)13동으로 등제하게 된다.

이후부터 마을명을 敦浦로 표기했으며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리 마을
명은 “된개”로 통용 되고있다.

이때 관할 구역을 동으로 굽은오름 서는 바다 남으로 日果里에 경계를 접한
돈두악 북으로는 두모와 접한 당산봉으로 4표를 정해 마을이 경계를 삼았었다.

1) 무릉리 분동(分洞)

200여년 이상 구전으로 내려오는 입자조막갑인 설동이 무릉리 설동이 유
래인것 같다.

1730년을 전후하여 구남무기에 인가들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1732 (입
자)년에 조막하고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1794(갑인)년에 설동하여 된
개에서 분리 되었다.

무릉리라 마을명을 지은것은 마을 원로들이 중지와 1794(갑인)년 장원급

제한 변경봉씨(후에 내직을 거쳐 대정현감.만경현령.사헌부장령 이조참의 역임)의 의견을 받아 무릉리라 명명 하였다.

2) 자연취락형성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745년경 삼각골에 경주 김씨 일가가 거주 했었으며. 1750년을 전후하여 곤물,군물, 고분장도 등에도 사람들이 거주하였으나 현존하지 않고 있다.

3) 논각

1750년경 “목은텃개”에서 태우를 이용하여 어로생활을 하던 사람과 “삼각골, ‘멜케” 등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하여 현 신도2리 포구를 생활터전으로 집주하기 시작한것이 이 마을의 형성 유래다.

4) 비지낭케 (비자동)

비자동이라 함은 속칭 산아진 밭에서 현 신도1리 쪽으로 비자나무가 무성했다고 해서 비지낭케라 부르게 되었으며 당초 ‘골물’케에 살던 제주 제주부씨일가가 오로코미를 거쳐 1795년 현재 비지낭케 중심지인 2087번지에 옮겨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 형성이 시작되었다.

다. 桃原으로 개명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 향교에 주축을 이루는 선비들이 이 고장에서 많이 배출되고 1772년 원주 변경봉공이 중문에서 이주하고, 1781년 급제한 예조좌랑 김용 1794년 장원급제 대정현감 반경현령 사헌부장령 이조참의를 지낸 변경봉 등 중앙에 대거 진출하여 마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문촌으로서 타지방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천시여기던 한자표기로 “개” 浦字를 마을 이름으로 쓰는 것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촌의 품위에 걸맞는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논의 하던중 1811년 (신미)본리 출신 변경봉공이 대정현감으로 부임하면서 본리에서 분리 설동된 마을명이 무릉리임으로 도원으로 개명하는 것이 좋다는 중지를 모아 개명했다.

관할구역은 현 무릉2리,인향동,곤물, 병두못,전지동 한장동 일부가 포함된 현 신도리 경계이다.

라. 신도로 改名

1899년을 전후하여 씨족간의 갈등으로 씨족분향 (일명바둑분향)이란 오점을 낳고 도원 순창으로 분동되고 말았다.

경민장 (1906년이후 이장)이 두 사람이 되었다.

마을이 분리 운영되기를 15년 여간 지속되다가 한일 합병후 1914년 3월 행정 구역이 개편될때 대정군 이 대정면 으로 바뀌어지면서 본리는 新道로 개명할 것으로 하여 현재의 新都리가 되었다.

1914년 이전까지 본리에 속했던 인향동 병두못,전지동이 무릉리로 편입되었고 한장동 일부분은 고산으로 속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 토지조사가 끝나는 191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도리를 1구와 2구에 분리되었다.

관리 구역은 1구는 현 신도1리 구역과 大巨洞(큰케왓) 2구는 현 신도2리와 비자동, 대거동은 1909년 인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새나무곳은 1900년 경부터 인가가 7세대 정도 정착 거주하다가 4.3사건당시 이주 폐촌 되었다.

마. 신도3구 분구

광복후 현 신도3리 주민들이 생활여건에 맞도록 마을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대거동은 신도1구에서 비자동은 신도2구에서 분구해 줄것을 행정당국과 절충 1946년 3구로 분구되었다.

서기 1953년 행정 직제개편으로 구를 리로 하고 각 리마다 이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통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